



한 시인의 사상적 버팀질 김지하 이야기모음 「남녘땅 뱃노래」

— 소설가 郭義珍씨

지금 독서중

저마다 독서의 효용이 다를 테지만 굳이 따진다면 읽는 즐거움, 지식을 얻기 위해, 또는 킬링타임용일 수도 있겠다.

“소설을 쓰다보면 나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리 보고듣고 배워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 광의진씨(42)는 새로운 ‘읽’을 건져내는 방편으로 독서를 한다며, 요즘 읽고 있는 김지하 이야기모음 「남녘땅 뱃노래」(두레, 1985)를 소개했다. 이 책은 김지하 시인이 옥중에서 쓴 양심선언, 편지, 산문 등을 모은 것.

“시대의 조류에서 버팀질하려는 한 시인의 사상적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그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모색하고 싸웠는지, 또한 그가 몸담은 민족과 역사의 문제들에 대한 치열한 투쟁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최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는 우주운동의 필연적인 변화를 예감하면서 앞으로 올 개혁적 변화에 우리나라의 운수가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예감한 최계우의 사상을 밝힌 부분이라고.

“죽임의 세력들에 의해 모든 생명이 짓밟히고 부서져갈 때, 그 죽임으로부터 생명을 해방시켜 생명답게 꽃피우게 해야 한다”는 시인의 ‘생명의 세계관’을 통해 광의진씨는 한 ‘자유사상가’의 모색의 변화과정을 생각해봤다고 한다.

83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한, 스스로 ‘늦깎이’라고 말하는 광의진씨는 뒤늦은 출발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그동안 2권의 창작집과 장편 1편을 펴냈고, 곧 새로운 장편 「살아있는 죽음」을 상재할

예정에 있어 부지런히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광의진씨가 글쓰는 시간은 주로 오전부터 낮시간. 그땐 아예 전화코드조차 뽑아놓는다고 한다. 근래엔 주로 장편에 주력하는데, 작품의 맥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한 작품에만 몰두하여 전작으로 쓴다고.

“얼마전 고향 목포에 다녀왔지요. 20여년만의 귀향인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비좁은 길이며 쇠락한 부둣가, 가난한 사람들. 그순간 내 마음속에 무겁게 내재해 있던 가난한 이웃들과 바다에 얽힌 유년의 기억들이 불현듯 솟구치며 내 고향애기를 쓰도록 충동질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의진씨는 어렵곤했던 기억의 실체가 절실하도록 뚜렷이 다가서자,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부라부라 장편을 쓰기 시작했다. 반쯤 진행됐고 12월말에는 탈고될 예정이라고 한다.

‘창작’동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 외에 광의진씨가 즐겨 찾는 곳은 대학가. 대자보에서, 학사주점 담벼락에서 가장 민감한 현실의 속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래서인지 주변엔 ‘젊은 친구’들이 많으며 점연쩍게 웃는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대작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긴 하지만요.”

앞으로의 소망을 말하는 그 눈에서 작가로서의 집념이 하나의 빛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 권정자 기자



中年문인들의 중후한 녀살 ‘作家同人’의 「때가 악하니라」

— 한솔기획 대표 高慶錫씨

지금 독서중

일반인들은 충무로 하면 영화의 거리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榮華(?)하고는 관계없는 소위

‘인쇄밥’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는 술한 애환이 서려 있는 삶의 현장이다. 어느 직종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획사무실과 중소기업체가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는 늦깎이인 셈이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솔직히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사무실은 젊은이들만이 갖는 순발력과 패기가 필요하고 고래심줄같은 끈기도 견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생리입니다.”

지난 봄, 명보극장 뒷건물에 사무실을 연 한솔기획 대표 高慶錫씨(41)는 충무로에의 轉入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토로한다. 다행히 출판사나 잡지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이 알음알음으로 도와줘 ‘충무로 바닥’에서 그나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는 高慶錫씨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읽은 책은 한솔에서 작업한 ‘作家同人’의 동인지 「때가 악하니라」(작가정신, 89)이다.

“저에게 ‘작가동인’들은 작품보다 인간적인 친밀감을 먼저 갖게 됩니다. 同鄉문인들이 많고 연배로 볼 때 동일한 성장배경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작품도 깊고,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中年의 나이에 들어서면 의례히 독서와는 담을 쌓는 것이 우리네 풍토다. 그 까닭이야 책을 읽지 않는 당사자들의 게으름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중년의 세계를 성숙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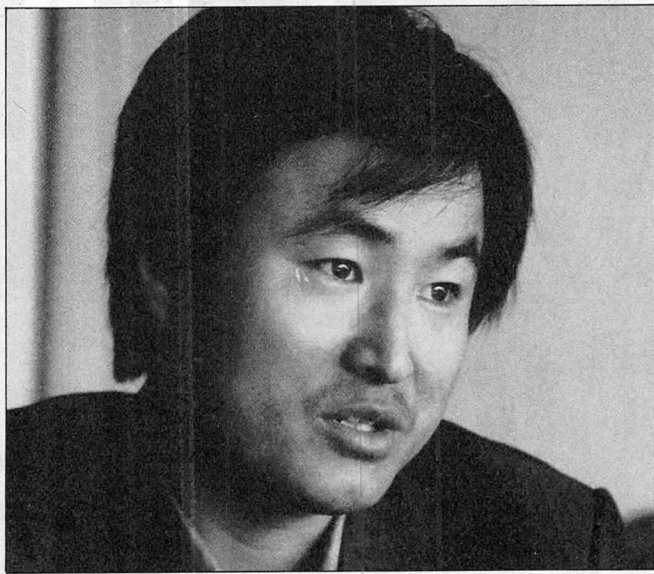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작가동인의 작품집은 중년들이 읽기에 적합합니다. 젊은 작가들이 발빠르고 힘이 넘치는 소설로 자기의 세계관을 독자들에게 강요(?)한다면 이들은 나이먹은 이들이 갖는 약간의 무거운 입담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되새기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문열, 김원우, 김상열, 윤후명, 유익서, 김채원, 정소성, 김인배, 황충상씨 등 우리 소설문단의 기라성같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작가동인’도 기실 결성무렵인 79년에는 무명문인들의 동인지에 불과했었다. 이번 동인지집은 5번째 작품집인데 그들이 이즈음 누리는 문학적 명성을 생각할 때 격세지감을 느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새롭게 찍어진 작품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발표되었던 작품 중에서 작가 스스로가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록으로 실려 있는 ‘이 작가를 말한다’는 따뜻한 文友愛로 서로의 인생편력과 작품세계를 격려, 읽는 이로 하여금 작품외적 즐거움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장사꾼’이 되지 못해 경영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좋은 책을 만드는 과정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자족하고 있다는 高慶錫씨는 앞으로 편집·광고·인쇄대행 업체로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 이권우 기자



道佛禪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 멘타크 치아의 「제목이 필요없는 책」

— 월간 「학원」 기자 朴永泰씨

지금 독자들

‘性是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했다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폭력과 상업성에 휘말려돌아가는 요즘의 성문화를 한탄치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인간본래의 성이 이렇게 파괴당해야 하는가. 朴永泰씨(34·월간「학원」기자)는 한마디로 현대인이 외부적인 욕망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사람들은 내부적인 것에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종교도 그래요. 외적인 기복신앙이나 행사에 더 관심이 크고 진정한 내면의 세계는 위축되고 있죠. 성에 대해서도 외부적인 욕망만 키우다보니 인신매매나 포르노비디오가 판을 치는 겁니다.性に 대한 욕망을 바르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죠”

바로 그러한 성교육의 충실한 구실을 할 수 있는 책으로 박영태씨는 멘타크 치아의 「제목이 필요없는 책」(명상)을 소개한다. ‘병든 시대를 위한 성공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性を 온전한 생명운동으로 실현케 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道佛禪의 입장에서 전달해주고 있다.

“얼핏 보면 외설적인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하나의 소유주라고 생각하고 명상적인 측면에서性を 바라봅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여러가지氣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성에너지인데, 이것은 바로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와 형이상학적 존재, 동물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를 연결하는

이음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몸에너지의 순환과정을 이해함으로써氣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는 설명이다.

“불교의禪房에서도 성에너지를 전환하는 방법을 실행합니다. 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인간의 욕망은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죠. 결혼한 부부가 오래 살다보면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는 것도 성에너지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정독하고 나면 아마 권태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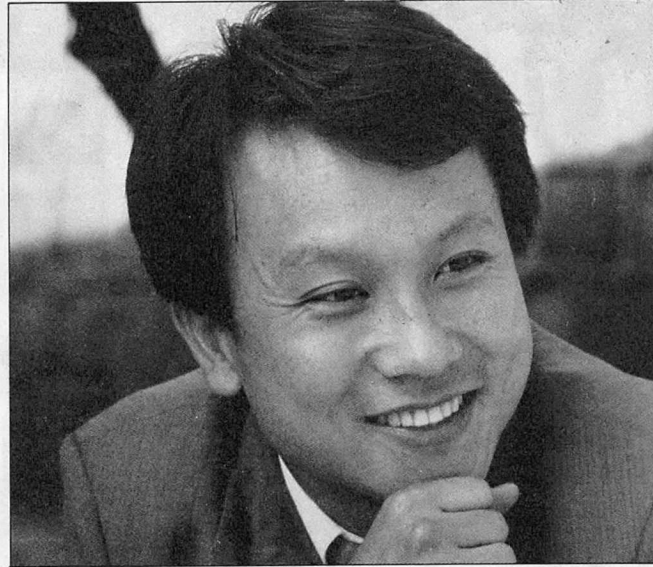
결혼한지 이제 다섯달 정도 됐다는 박영태씨의 말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마광수교수의 ‘야한 여자론’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입장이다. “진리의 말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의 한 시각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그 모든 다양한 견해를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박영태씨가 선과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존재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 때문.

“나 자신의 무게, 세계의 무게, 우주의 무게를 느끼고 고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였던 때가 있었죠.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난 나 스스로의 내면세계를 자주 들여다봄으로써 때로 우주의 무게까지 감당해보려는 겁니다.”

잡지사 경력만 8년에 이르는 박영태씨는 직업상 책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신문의 신간안내기사까지 살살이 훑어보는 열렬한 독서광. 그가 한가지 진리를 가르쳐준다.

“종교 아닌 곳에 바로 종교가 있습니다.”

— 김지원 기자



지역전승연희의 복원과 의미규명 張正龍의 「江陵官奴假面劇연구」

— 교사 李良燮씨

지금 독자들

‘여학교 총각선생’
李良燮씨(28
·海成여중)가
모처럼만에 만난
친구들로부터 의례

농담처럼 듣는 첫마디가 ‘종갓다’거나 ‘부럽다’는 말이다. 그 스스로는 특별히 좋을 것도 부러움을 살 만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의 ‘통속적 기대’가 그를 가만히 놓아두질 않는다.

“남학생을 가르칠 때에 비해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것 외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괜히들 한번씩 들쭉서보곤 하죠.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제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하구요. 교사에겐 학생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선불리 틈을 보여서도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그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江陵官奴假面劇研究」(장정룡, 집문당). 週당 20시간이 넘는 수업 진행하랴, 대학원에 나가 전공공부하랴 바쁜 와중에서도 보던 책을 잠시 미뤄둘 만큼 흥미롭게 읽힌다고.

“무엇보다도 제 고향 강릉의 전통연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크게 마음에 끌렸습니다. 저같은 강릉토박이조차도 이제는 기억 속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은 지역전승연희의 실상을 복원하고 그 의미를 규명해주고 있어 고맙더군요.”

특히 그는 이 책의 말미에 붙은, 이제는 고인이 된 김동하·차형원의 구술체록을 값진 것으로 평가하는데, 다른 지방의 민속극과는 또다른 강릉만의 특유한 맛과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전체적인 짜임새도 돋보입니다. 민속학적 접근, 문학적 해석, 연극적 이해의 세부분으로 서술돼 있어 강릉관노가면극의 전체상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오제라는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갖는 중층적인 의미구조가 비교적 명쾌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가 이 책에서 느끼는 것이 일종의 ‘질투’ 비슷한 감정. 전공은 다르지만 자신보다 불과 네댓살 위인 젊은 연구자가 이만한 저술을 펴냈다는 데 대해 그는 큰 자극을 느낀다.

“한마디로 좀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색이 대학원에 적을 얹어놓았으면서도 지금까지 별달리 해놓은 게 없다는 자괴감까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게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바짝 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같은 생각이 그러나 얼마나 오래 갈 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덧붙이는 이양섭씨가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현대소설론. 아직까지는 先學들의 연구를 찾아 읽는 데 급급한 수준이지만, ‘작가’가 아닌 ‘작품’을 중시한다는 원칙만은 철저하다. 작가에 대한 고려는 오히려 작품의 순수한 이해를 가로막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선지 그는, 문학전공자들이 흔히 술자리 같은 데서 안주 삼아 떠드는 작가들의 스캔들이나 문단野史 따위를 아주 듣기 싫어 한다.

— 강철주 기자